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88-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2022. 07. 12.

담당자 강덕진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74
e-mail | doug@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1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82%가 찬성

자기 결정권 보장,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가족 고통과 부담 등의 이유로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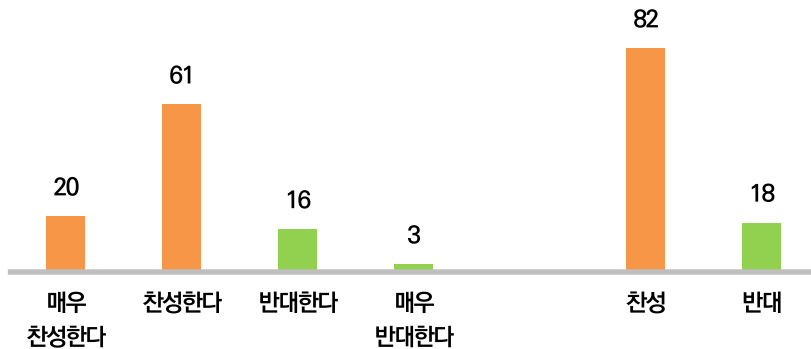
오랜 시간 치료를 받는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에 밝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력 존엄사’ 법은 이보다 한단계 나아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결정권을 높인 것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였다.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로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높았으며,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타 연령층 대비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 82%

(단위 : %)



	사례수 (명)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①+② 찬성	③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③+④ 반대	계
전체	(1,000)	20	61	82	16	3	18	100
연령								
18-29세	(173)	21	60	81	15	4	19	100
30대	(151)	17	58	74	21	5	26	100
40대	(184)	17	67	83	16	1	17	100
50대	(194)	22	59	81	15	4	19	100
60세 이상	(298)	23	63	86	13	1	14	100

질문: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의원이 조력 존엄사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조력자살에 해당하는 조력 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7.1. ~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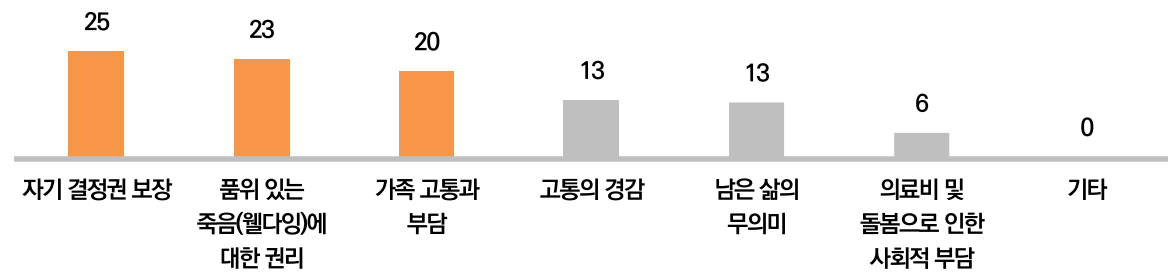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인다.

(단위 : %)

**조력 존엄사 입법화 찬성 이유,
자기 결정권 보장 25%,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23%, 가족의 고통과 부담 20%**



	사례수 (명)	자기 결정권 보장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 에 대한 권리	가족 고통과 부담	고통의 경감	남은 삶의 무의미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기타	계
조력 존엄사 입법화 찬성	(817)	25	23	20	13	13	6	0	100
연령									
18~29세	(140)	44	13	10	15	9	9	0	100
30대	(112)	30	22	18	17	6	5	1	100
40대	(153)	28	17	26	15	6	6	1	100
50대	(157)	18	27	22	11	16	6	0	100
60세 이상	(255)	14	29	21	11	20	4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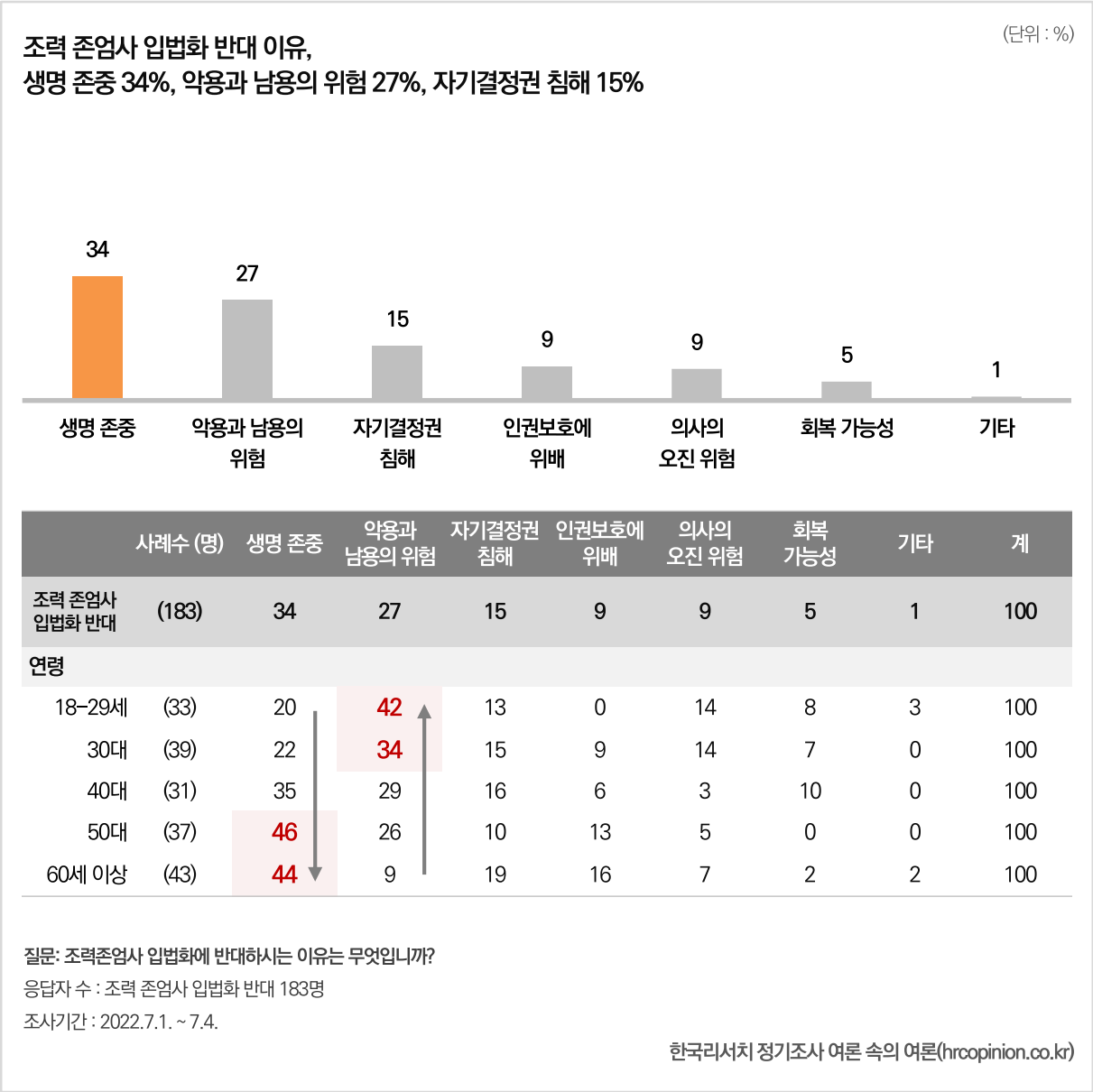
질문: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 :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 응답자 817명

조사기간 : 2022.7.1. ~ 7.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아, 반대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2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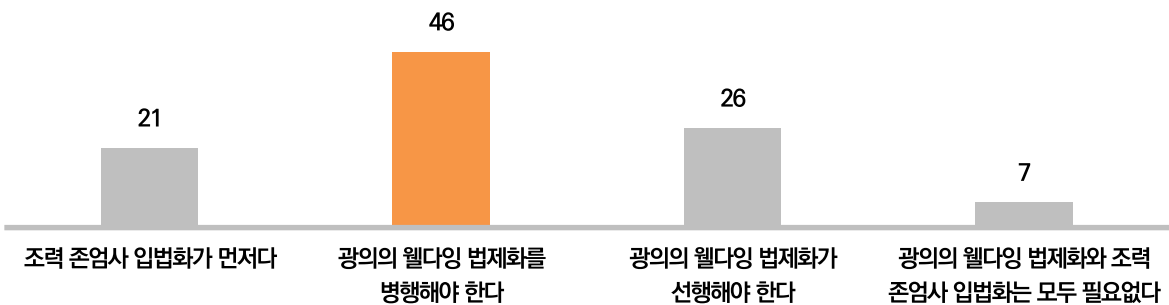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 병행 또는 선행 필요 72%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 %)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 병행 46%,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 선행 26%



질문: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7.1. ~ 7.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 비용의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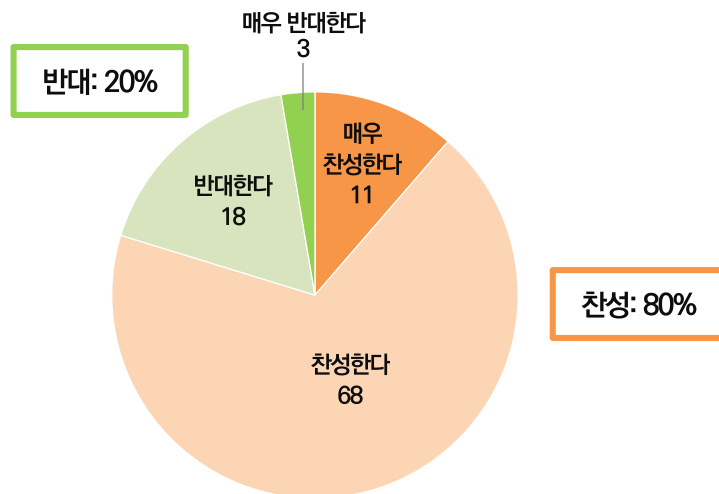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절감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찬성 80%
국민의 품위 있고 고통 없는 생애 말기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긍정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호스피스 비용으로 1인당 370만 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고 한다. 이 절감 비용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여론은 품위 있고 고통 없는 생애 말기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감될 건강보험재정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확대하고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20% 수준이다.

(단위 : %)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건강보험재정 지출 절감분 투자 찬성 80%



질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호스피스 이용으로 1인당 370만 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됩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품위있고 고통 없는 생애 말기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감될 건강보험재정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확대하고 국민의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7.1. ~ 7.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웰다잉 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찬성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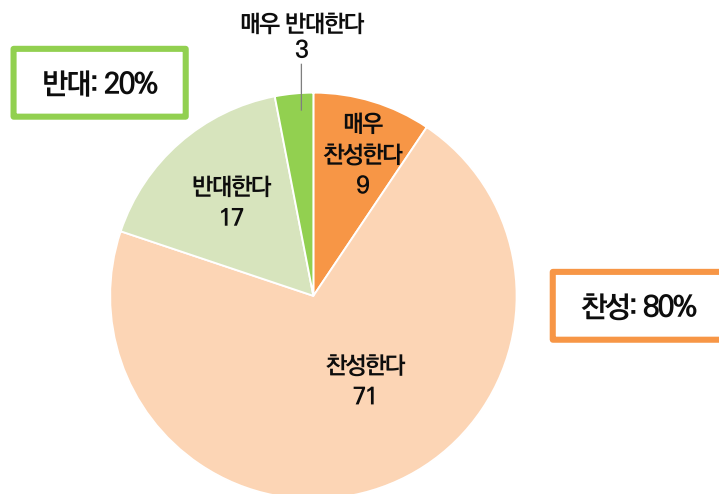
웰다잉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기금 마련 및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에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기금을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간병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과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문화기금을 설치하고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보았다.

응답 결과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에 대해 80%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87%로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찬성 80%

(단위 : %)



질문: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기금을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간병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과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문화기금을 설치하고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7.1. ~ 7.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0세 이상에서 87%가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찬성

(단위 : %)

	사례수 (명)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①+② 찬성	③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③+④ 반대	계
전체	(1,000)	9	71	80	17	3	20	100
연령								
18-29세	(173)	8	70	78	19	4	22	100
30대	(151)	7	65	72	22	6	28	100
40대	(184)	7	71	78	18	4	22	100
50대	(194)	11	70	81	16	3	19	100
60세 이상	(298)	12	75	87	13	1	13	100

질문: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기금을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간병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과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문화기금을 설치하고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7.1. ~ 7.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5

대통령과 국회의 웰다잉 지원 선언 필요성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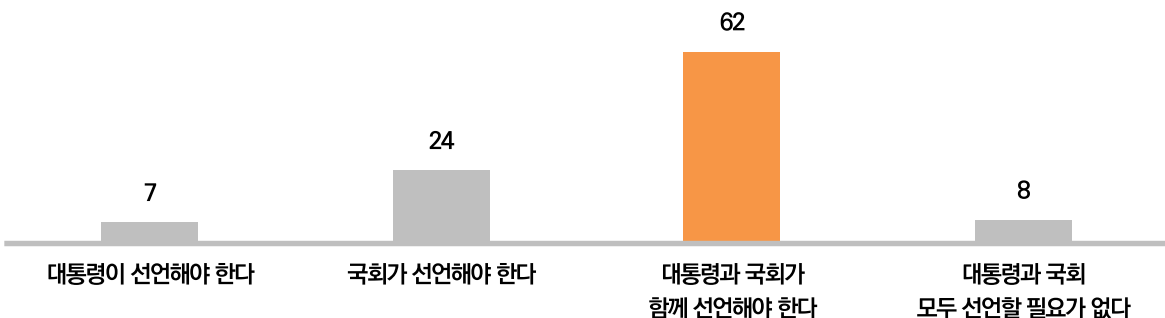
영국은 삶의 마지막 돌봄 국가전략(End-of-Life Care Strategy)을 추진해왔고, 미국은 카터 대통령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 매년 11월을 ‘국가 호스피스 달(National Hospice Month)’로 선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국회가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로 삶의 마지막 돌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웰다잉을 필요로 하는 말기 환자와 그들의 마지막 생애를 돌보는 가족과 전문가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선언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높아, 국민 여론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 국회 단독 선언 24%)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위 : %)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웰다잉 지원 선언 필요 62%



질문: 영국은 삶의 마지막 돌봄 국가전략(End-of-Life Care Strategy)을 추진해왔고, 미국은 카터 대통령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 매년 11월을 ‘국가 호스피스 달(National Hospice Month)’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국회가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로 삶의 마지막 돌봄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책임지고, 웰다잉을 필요로 하는 말기 환자와 그들의 마지막 생애를 돌보는 가족과 전문가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7.1. ~ 7.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2년 6월 기준 전국 7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680명, 조사참여 1,20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0%, 참여대비 82.7%)
조사일시	• 2022년 7월 1일 ~ 7월 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